

2026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2026. 1. 9.(금) 09:00~10:00

2. 장소: 대학본부 2층 D-1 회의실

3. 참석위원

- 위원장: 박준식(부총장)
- 위원(학교대표): 홍석민(D-1처장)
- 위원(학생대표): 강동현(총학생회장), 김채원(총학생부회장), 홍혁주(경영대학 학생회장)
- 위원(교수대표): 박동진(광고홍보학과)
- 위원(직원대표): 허희정(학생지원팀)
- 위원(관련전문가): 김성희(한국투자증권), 황규선(강원연구원)
- 간사: 박용준, 권기범(예산팀)

4. 회의 안건 및 주요내용

가. 회의 안건

- 1) 2026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 2025 대학운영 현황 및 2026 운영방향
- 3) 2026 등록금 책정(안)

나. 주요 내용

- 2026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위원을 소개하였고, 1차 등심위 개최의 목적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함.

- 학교대표가 등심위 운영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안내하며 올해 등록금 인상률 법정한도와 산정방법을 설명함. 이어 2025년 대학운영 현황을 공유하며 학부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과 대학원 재학생 충원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함. 또한 주요 국고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2026년 국고사업비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2025년과 비슷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2025년 교내 환경개선 및 학생지원비로 76.9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주요 사용 내역을 간략히 보고함.

- 학교대표가 2026 예산운영 방향과 예산 요구(안)을 설명하며 등록금 수입 추정의 근거가 되는 학부 등록생 수 추정 방식을 안내함. 최근 3개년도 등록생 비율 및 중도이탈률을 고려한 근사치 추정을 통해 2026학년도 등록생 비율을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각 부서의 예산 요구(안)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40.7억 원의 추가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함.

[간서명란]

강동현	허희정	황규선
-----	-----	-----

- 학교대표가 최근 등록금 책정 및 수입 현황을 설명하며, 2009년 이후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동결 또는 인하되어 왔고, 2025년 5.4% 인상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비 2025년 등록금 수입이 88.6억 원 감소하였다고 알림. 이로 인한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을 법정 상한(3.19%) 이내에서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함.
- 위원장이 등록금 인상을 법정 상한 기준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해당 범위 내에서 등록금 책정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학교대표가 지난해 등록금 인상을 통해 17년간 동결되었던 교원 인건비를 일부 인상하였으나, 아직 타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함. 우수 교원 확보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건비 현실화가 필요함을 강조함.
- 학생대표가 회의에 앞서 이번 회의자료와 전년도 회의록을 검토하였으며, 전년도 학생대표와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힘. 2025 국고사업비 사용내역을 봤을 때 행정 및 연구공간 환경개선에 투입된 예산 비중이 높아보인다고 언급함. 이와 관련하여 등록금 인상 시 학생지원비가 어떤 부분에 얼마가 투입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예산팀장이 회의자료에 포함된 국고사업 사용내역에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연말·연초에 투입되는 공사비가 일부 반영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학생공간을 포함한 환경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함.
- 교수대표가 학생들이 좀 더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부 학생회실·동아리실의 시설 노후화 문제를 언급하고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함. 이에 대해 학교대표는 일부 단과대학의 경우 국고사업을 통해 환경개선을 진행 중이나, 이를 대학 전체로 확대하여 시설 보수 및 개선을 진행하려면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을 설명함.
- 학생대표가 지난해 등록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물 냉난방, 누수, 온수 문제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언급함. 등록금 동결이 장기간 지속된 건 이해하나, 학생들의 재학 기간이 대부분 4년 내외로 제한적인 상황에서 2년 연속 법정 상한에 근접한 인상은 심리적 부담이 크다고 설명함. 또한 의과대학 관련 재정 부담이 정리되어 등록금 수입이 회복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간서명란]

강동현	최희정	김민서
-----	-----	-----

- 학교대표가 아직 의과대학 관련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며, 휴학생 증가로 인해 아직 등록금 수입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함. 등록금 동결이 장기간 지속되는 동안 인건비, 공과금, 운영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최대한 지출을 억제하고 국고사업 유치를 위해 교직원들이 노력해 왔음을 강조함. 정보공시 지표상 등록금 의존률은 낮은 수준이며 재정 구조상 국고사업비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을 설명하고, 지난해 국가장학금 II유형을 포기하면서까지 등록금 인상을 추진한 것은 누적된 재정 문제들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임을 밝힘.

- 외부위원이 그간 등심위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와 학생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함을 언급함. 학생 측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고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들도 있을 텐데,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등록금을 동결할 경우 학교 운영에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함. 학생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제시함. 다만 등록금 인상에 상응하는 교육환경 개선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측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위원장은 금일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하며,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회의 전 예산팀 실무자들과 사전 협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함. 각 위원들이 회의자료와 논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다음 회의에서 등록금 책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힘. 이에 대해 각 위원들이 동의하며 회의를 종료함.

붙임 2026학년도 제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간서명란]

강동현	히희정	김남준
-----	-----	-----

2026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서명부(1차)

구분	직위	소속	성명	서명
학교대표	위원장	부총장	박준식	
	위원	D-1처장	홍석민	
학생대표	"	2026 총학생회 회장	강동현	강동현
	"	2026 총학생회 부회장	김채원	김채원
	"	2026 경영대학 학생회장	홍혁주	홍혁주
교수대표	"	사회과학대학 광고홍보학과	박동진	
직원대표	"	학생지원팀	허희정	허희정
전문위원	"	한국투자증권 춘천지점	김성희	김성희
	"	강원연구원 분권연구부	황규선	황규선